

월/요/광/장

이원일



지난 14일 체코 프라하에서 개막된 제4회 프라하 비엔날레에 광주출신 작가 강운과 함께 다녀왔다. 이번 비엔날레 행사에 공동큐레이터로 임명된 필자는 한국작가 10명의 출품작 30여점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필자를 비롯한 한국 미술관계자들에게는 개막식에 참여한 국제미술계의 주요 인사들과의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과거의 역사적 공간을 전시장화한 칼린홀에서 한국작가들의 작품이 주목을 받았고, 특별히 광주가 배출한 강운 작가를 국내 전시행사가 아닌 국제비엔날레에 최초로 출품시키므로써 작가 본인 뜻이 않은 흥분과 기대, 그리고 설렘을 감출 수 없었다. 작품을 행사장 밖에 거는 설치단계에서부터 행사를 공동주최한 이탈리아 플래시 아트에서 파견된 설치팀원들이 강운의 감성적 작품들을 흥미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이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유럽의 주요도시인 프라하에서 국제적 작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객관적 평가를 받는 광주작가에 대한 자긍심에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 왔다.

물론 다른 9명의 한국작가들의 작품들이 선전하는 모습도 기쁜 일이었지만, 필자와 10여 년을 교류해오며 함께 예술적 성장을 이루어온 화순출신인 한 작가를 세계무대의 한복판에 세우고 말라지 못할까 걱정된다.

프라하의 봄, 광주의 봄

어진 곳에서 그의 '수줍은' 연기를 지켜보는 필자의 심정을 작가들이 얼마나 헤아릴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필자가 한국작가와 광주작가를 지속적으로 세계무대에 진출시키고 있는 이 지난한 여정은 단순한 애국심의 발로도 아니다. 문득 그녀가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프라하 출신 체코인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우리에게 익숙한 20세기 영화의 제목과 같은 '프라하의 봄'이 '광주의 봄'과 조우하는 순간을 목격할 쉼이다. 개막 후 사흘째가 되는 날 필자는 전시장에 남아 행정적 마무리를 하고 있었고 강운 일행은 중세

래의 전시팀장이라는 소중한 직책을 통해 국제적 실무경험을 학습했고, 광주작가들과 함께 국제미술계에서 성장해 왔다는 고마움에 대한 작은 보답과 신의, 그리고 그들과 세계무대에서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는 소망이 전부다. 우연의 일치라고 할까, 강운의 출품작품 '유아공'은 프라하의 5월 행사에 어울리는 봄기운이 완연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이 작품은 한지를 겹겹이 밀착시켜 종이라는 물질을 넘어선 시간의 컷들이 축적된 공간 위에 꽃잎이 흐드러지게 펼쳐진 감성적 공간을 연출한 화면이다.

와 르네상스양식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체코의 전통마을 체스케 그루보프를 향해 떠났다. 체코출신 작곡가 드보르작과 생애를 이루는 스페타나의 '나의 조국'의 영감의 원천이 된 몰다우강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전통마을 유적지를 여행하며 출발한 작가가 일행을 배웅하며 필자는 또다시 낯다른 개인적 감회에 젖었다.

10여 년 전 필자가 성곡미술관에 근무할 당시 화순 동북에 위치한 그의 작업실을 방문했던 기억, 그리고 그를 곧바로 성곡미술관의 '내일의 작가' 개인전 프로젝트로 초대하여 서울의 도시인들에게 '화순의 밤하늘'을 선보였던 기억, 그 이후 그가 광주비엔날레를 시점으로 홍콩 등지의 아시아 무대에 진출하기까지 그동안의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프라하로 떠나기 며칠 전 광주 도심으로 옮긴 그의 작업실을 다시 방문했을 때 그가 수줍게 웃으며 던진 말을 기억해 보았다. "전 아직까지 춘봄인데요, 펠" 그래서 필자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강선생, 세계적 춘봄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프라하의 봄과 광주의 봄이 만난 곳에서 이제 세계적 춘봄이 되기 시작한 그의 뒷모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프라하의 5월이다. <스위스 BSI 재단 큐레이터>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김재호.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거의 매일 '사기(詐欺)'라는 말을 접한다. '사기'는 '속일사(詐)'와 '속일기(欺)'로, 속이는 것을 여러 번 거듭함을 의미하며, 남으로 하여금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유대민족의 생활규범인 탈무드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짓말'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 번째는 누군가가 이미 산 물건이 비록 나쁘다고 해도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친구와 결혼한 배우자가 못생긴 경우라도 "굉장한 미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외의 거짓말은 모두 용서받을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짓말? 고 했다. 우리의 형사소송절차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를 통한 인권보장'이라는 2대 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이념은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이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 절차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지난 1954년 제정된 이래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치는 동안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온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는 소홀하여 왔다. 특히, 수사절차에서 허위진술 및 허위자료 제출이 난무하는 작금의 현실은 국가 형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건의 진실은 관련 당사자와 목격자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객관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참고인들이 허위로 진술 내지 증거를 은닉하는 방법

응급환자 이송 구급차 더욱 청결해야 한다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신 어머니를 며칠 후 시골로 모시기 위해 사설 구급차를 요청했다. 그러나 구급차 안에서 쉼없는 밤새가 많이 났고 곳곳에 적잖은 피자국도 보여 너무나 불쾌했다. 질병을 갖은 사람은 그만큼 면역력이 약해 구급차 내부가 더 깨끗해야 하지 않을까. 병을 고치는 병원에서 오히려 세균에 감염돼 질병을 얻는 사람들을 적잖게 본다. 하물며 한 평 안팎인 손바닥 만한 구급차 내부에는 어떻게, 워낙 밀폐도 잘 돼있기 때문

▲이진경·광주시 북구 운정동

기고 송재빈. 얼마 전 광주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자신의 아버지의 목숨을 구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그 학생은 인터넷 동영상 보고 독학으로 평소 연습했던 경혈을 토대로 구급대원이 현장 도착 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도 식생활이 서구화되어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 나라마다 식생활의 습관, 인적, 물리적 요인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건강교류는 기차역이나 공항,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응급 의료법이 정지된 환자의 경우 5분 이내 심폐소

사람을 살려내는 심폐소생술

생술이 실시되면 소생확률이 증가한다. 초등학생이 심정지 환자를 구한 한 예가 하나의 미담(美談)으로 지나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심정지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응급처치는 환자가 쓰러지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의료체계의 신고와 응급처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사람의 뇌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4~6분이 지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만 뇌사로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정상적인 상태로의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이다. 현재 소방관서 등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응급의료체계의 확충은 국가안보, 민생치안, 소방업무 등과 함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진 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지난해에 인명소생이 가

노인 교통사고 방지, 양보·배려하는 습관부터

얼마 전 건널목을 건너던 중 거친 클랙스 소리가 귀청을 찢는듯했다. 돌아보니 한 할아버지가 건널목이 아닌데 무단횡단을 하시면서 도로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셨다. 급정거한 차들이 사고가 날 뻔했으니 화도 나고, 할아버지더러 빨리 가시라는 듯 뺄뺄거렸던 것 같다. 노약자의 행동은 본인 중심 성향이 강하고, 주위를 살피지 않으며 사고 위험성 그 위험에서 피하는 행동이 아니고 노화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보행속도가 떨어져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욕구도 지하도 이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노인들이 이 같은 습성에 대해 너그럽게 이해하고 기다려 줄 줄 아는 운전습관이면 노인 교통사고가 많지 않을 것이다. 성실 급한 우리나라 운전자가 이다 보니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인인들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지각능력이 떨어지기 전인 50대 전후반에 사회복지와 미래 안전 차원에서 국가가 미리 교통사고와 대체법 등을 집중 교육시켜야 한다고 본다. ▲정은채·광주시 광산구 북동동

시설 '바보 노무현'이 남긴 속제와 교훈

23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행렬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옛 전남도청을 비롯해 곳곳에 마련된 분향소에 추모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는 급작스런 서거에 대한 국민의 충격과 안타까움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슬픔과 비탄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 앞에 닥친 현실과 도전이 눈물만 흘리고 만큼 녹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서거가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각오로 다시 뛰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많은 속제와 교훈을 남겼다. '정치인 노무현'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화두 가운데는 언젠가는 실현돼야 할 속제도 있다. 권위주의 청산과 지역주의 타파, 남북화해협력 등이 바로 그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최대화두는 지역주의 타파였다. 그의 정치역정은 지역주의

U대회 유치... 꼼꼼한 준비로 '성공신화'를

마침내 광주가 해냈다. 광주시가 한국 시각으로 24일 새벽 3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총회 투표에서 캐나다 에드먼턴, 대만 타이베이를 따돌리고 '2015하계 유니버시아드'(U대회) 개최 도시로 선정됐다. 이로써 광주는 무주(97년 동계U대회), 대구(2003년 하계 U대회)에 이어 국내에서 U대회를 유치한 3번째 도시가 됐다. 오는 2015년 대회 개최까지 남은 6년여의 기간 동안 치밀한 준비작업을 착실히 진행해 대회개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지원은 대회의 성공을 결정하는 관건이다. 정부와 지역 정치권이 안정적인 U대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이와 함께 7개 종목의 치를 수 있는 국제규모의 스포츠 시설정비, 호텔·선수촌 등 숙박시설 구축도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다. U대회를 향한 광주시의 도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無等鼓 스포츠마케팅. 스포츠 인구가 급증하고 스포츠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해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삼으려는 도시들이 늘고 있다. 이른바 '스포츠 마케팅'이다. 지난해 올림픽을 개최한 중국 베이징과 선전(2011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러시아의 모스크바(2013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카잔(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소치(2014년 동계올림픽)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주요 도시와 지자체들도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지난 2002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부산은 또다시 2020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도전장을 냈고 대구는 2011년 세계 육상경기선수권대회, 인천은 2014년 아시안게임을 개최지로 확정됐다. 강원도 평창은 동계 올림픽(2018년) 유치를 위한 세 번째 도전에 나섰다. 전남도는 F1(포털월)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둘러싼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t list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prices.